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곽근혜¹ · 박순옥² · 오수민³ · 서인순⁴ · 이종란⁵ · 박선정⁶ · 박병준⁷

¹두원공과대학교, 조교수 · ²여주대학교, 교수 · ³수원여자대학교, 부교수 · ⁴수원여자대학교, 교수

⁵수원여자대학교, 조교수 · ⁶여주대학교, 조교수 · ⁷대구보건대학교, 조교수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Keun Hey, Kwak¹ · Soon Ok, Park² · Su Min, Oh³ · In Soon, Seo⁴

Jong Ran, Lee⁵ · Sun Jung, Park⁶ · Byung Jun, Park⁷

¹Doowon Technic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 ³Suwon Women's College, Associate Professor

⁴Suwon Women's College, Professor · ⁵Suwon Women's College, Assistant Professor

⁶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 ⁷Daeg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and self-esteem.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1 to June 30, 2018 in 261 third and fourth graders of four universities in Gyeonggi-do. Technical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pectively.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ommunication ability was 3.67(±0.46), empathy was 3.40(±0.35),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3.11(±0.59) and self-esteem was 3.09(±0.53) respectively.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pathy($r = .15, p = .013$), self-esteem($r = -.22, p = .001$)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ability($r = -.20, p = .001$). Empath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r = .14, p < .001$) and communication ability($r = .25, p < .001$).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ability($r = .51, p < .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gression fit F value was 33.22,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29.7%. Self-esteem was the greatest predictor of communication ability.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emotional stress and improve empathy and self-esteem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linical Practi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사소통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가장 기초적인 상호작용을 말하며, 마음의 결합, 공유의 상징이 성립함을 의미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1]. 의사소통능력은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랜 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은 간호대학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2].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과정으로,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돌봄 행위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 이에 따라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타 전문직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4], 간호대학생이 졸업시점에 의사소통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필수이므로,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론적인 지식의 현장실습 적용의 어려움, 의료진 및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역할수행의 모호함, 간호기술 및 수행능력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무력감으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6].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져 학습에 대한 불안정과 집중력 감소를 가져와[7] 학업성취도를 감소시키며, 임상실습과 간호에 대한 흥미와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8].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환자를 비롯하여 간호사, 보호자, 동료 및 타 부서 직원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공감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9]. 간호에서의 공감은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간호만족도

및 의료의 질적 향상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9].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긴 위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낙관적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0]. 간호사의 효율적 의사소통은 의료진의 관점에서 예상하는 문제가 아닌 대상자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간호가 계획 및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11]. 따라서 간호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자의 상황 속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가 필요로 하는 우선적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 및 판단해 내고 행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간호사의 능숙한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의료조직 구성원 간의 물리적 마찰을 감소시키며 이들 간의 관계를 향상시켜 의료조직 내 문제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의료사회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협력적이고 의사소통능력이 능한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12].

지금까지 국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5,13], 임상수행능력[14], 자기인식, 타인인식[15], 대인관계[16], 비판적사고 성향[17], 불안[18]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와 변인들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및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4개 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표본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3.1 analysis software(2015 Mindspark Interactive Network, Inc, 2015)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의 방법과 예측변수를 고려하고 medium effect size 0.3, power 0.95로 계산하였을 때 220명이 요구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290부를 배부하였고, 응답률이 부적절한 29부를 제외한 26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임상실습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Whang[19]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Whang[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2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0이었다.

2) 공감

Davis[20]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Jeon[21]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Davis[2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가 .86이었고 본 연구결과 신뢰도 Cronbach's α 가 .72이었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SES(Self-Esteem Scale)도구를 Ha[22]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 부정적 자존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a[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2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9이었다.

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Hur[2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5개의 의사소통능력 구성요인을 각 1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2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8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3학년,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총 290부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29부를 제외하고 261부를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유지가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연구 참여 및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들에게 자필서명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및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및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및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 243명(93.1%), 남학생 18명(6.9%)이었고, 학년은 3학년 학생 19명(7.3%) 4학년 학생 242명(92.7%)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167명(64.0%), '보통이다' 79명(30.3%), '나쁘다' 15명(5.7%)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 97명(37.2%), '보통' 135명(51.7%), '불만족' 29명(11.1%)이었다.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만족' 139명(53.3%), '보통' 110명(42.1%), '불만족' 12명(4.6%) 순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 111명(42.5%), '보통' 132명(50.6%), '불만족' 18명(6.9%)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성적은 평균 평점 4.0점 이상 27명(10.3%), 3.5~3.9점 114명(43.7%), 3.0~3.4점 86명(33.0%)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2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243	93.1
	Male	18	6.9
Grade	Junior	19	7.3
	Senior	242	92.7
Academic achievement	3.5~4.5	141	54.0
	3.5 under	120	46.0
Health status	Healty	167	64.0
	Moderate	79	30.3
	Unhealthy	15	5.7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97	37.2
	Average	135	51.7
	Dissatisfaction	29	11.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39	53.3
	Average	110	42.1
	Dissatisfaction	12	4.6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111	42.5
	Average	132	50.6
	Dissatisfaction	18	6.9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11(± 0.59)점, 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0(± 0.35)점,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9(± 0.53)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7(± 0.4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N=261)

Variables	M \pm SD	Min~Max
Clinical practice stress	3.11 \pm 0.59	1.09~4.91
Empathy	3.40 \pm 0.35	2.46~4.54
Self-esteem	3.09 \pm 0.53	1.60~4.60
Communication ability	3.67 \pm 0.46	2.20~4.8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t=4.52$, $p<.001$), 대학생활 만족도($F=0.48$, $p=.009$), 전공 만족도($F=6.36$, $p=.002$), 임상실습 만족도($F=9.5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서 여학생이 스트레스가 더 높게 보고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한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만족한 경우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성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61)

Variables	Categories	n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M \pm SD	t or F	p	M \pm SD	t or F	p	M \pm SD	t or F	p	M \pm SD	t or F	p
Sex	Female	243	3.15 \pm 0.56	4.52	<.001	3.40 \pm 0.35	0.07	.941	3.07 \pm 0.53	-2.05	.042	3.65 \pm 0.44	-2.22	.028
	Male	18	2.52 \pm 0.72			3.39 \pm 0.38			3.36 \pm 0.59			3.90 \pm 0.61		
Grade	Junior	19	3.02 \pm 0.50	-0.66	.509	3.36 \pm 0.33	-0.56	.575	3.21 \pm 0.48	0.99	.323	3.80 \pm 0.37	1.28	.202
	Senior	242	3.11 \pm 0.60			3.40 \pm 0.35			3.08 \pm 0.54			3.66 \pm 0.46		
Academic achievement	medium-top (3,5 higher)	141	3.14 \pm 0.61	0.82	.415	3.43 \pm 0.36	1.21	.227	3.06 \pm 0.52	-0.80	.426	3.68 \pm 0.45	0.61	.546
	lower(3,5 under)	120	3.08 \pm 0.57			3.37 \pm 0.35			3.12 \pm 0.55			3.65 \pm 0.47		
Health status	Healthy(a)	167	3.08 \pm 0.62	0.44	.647	3.38 \pm 0.36	0.39	.676	3.19 \pm 0.53	8.69	<.001	3.71 \pm 0.45	2.64	.074
	Moderate(b)	79	3.15 \pm 0.54			3.43 \pm 0.34			2.95 \pm 0.50			3.60 \pm 0.44		
	Unhealthy(c)	15	3.16 \pm 0.60			3.38 \pm 0.34			2.76 \pm 0.39			3.51 \pm 0.61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a)	97	2.97 \pm 0.64	0.48	.009	3.45 \pm 0.34	1.80	.167	3.20 \pm 0.58	9.91	<.001	3.81 \pm 0.43	9.11	<.001
	Average(b)	135	3.17 \pm 0.57			3.39 \pm 0.35			3.09 \pm 0.46			3.60 \pm 0.45		
	Dissatisfaction(c)	29	3.29 \pm 0.59			3.32 \pm 0.39			2.72 \pm 0.51			3.50 \pm 0.49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139	2.99 \pm 0.65	6.36	.002	3.44 \pm 0.35	1.70	.184	3.23 \pm 0.56	12.67	<.001	3.44 \pm 0.35	15.59	<.001
	Average(b)	110	3.25 \pm 0.50			3.36 \pm 0.34			2.96 \pm 0.43			3.36 \pm 0.34		
	Dissatisfaction(c)	12	3.21 \pm 0.39			3.35 \pm 0.43			2.66 \pm 0.63			3.35 \pm 0.4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a)	111	2.93 \pm 0.65	9.57	<.001	3.45 \pm 0.33	1.75	.176	3.21 \pm 0.51	6.15	.002	3.80 \pm 0.43	10.34	<.001
	Average(b)	132	3.24 \pm 0.52			3.37 \pm 0.36			3.02 \pm 0.52			3.59 \pm 0.42		
	Dissatisfaction(c)	18	3.30 \pm 0.43			3.35 \pm 0.41			2.83 \pm 0.60			3.42 \pm 0.65		

* Scheffé tes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은 성별, 학년, 성적,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t = -2.05, p = .042$), 건강상태($F = 8.69, p < .001$), 대학생활 만족도($F = 9.91, p < .001$), 전공 만족도($F = 12.67, p < .001$), 임상실습 만족도($F = 6.15, p = .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표현한 그룹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그룹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생활 만족도의 불만족한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성별($t = -2.22, p = .028$), 대학생활 만족도($F = 9.11, p < .001$), 전공 만족도($F = 15.59, p < .001$), 임상실습 만족도($F = 10.34,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그룹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공감($r = .15, p = .013$)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r = -.22, p = .001$), 의사소통능력($r = -.20,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은 자아존중감($r = .14, p < .001$), 의사소통능력($r = .2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능력($r = .5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5).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0.13만큼 감소하고 공감은 0.23, 자아존중감은 0.43만큼 증가한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al Stress, Empathy,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bility

Variable	Clinical practice stress	Empathy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1	.15 .013	-.22 .001	-.20 .001
Empathy		1	.14 <.001	.25 <.001
Self-esteem			1	.51 <.001
Communication ability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Ability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p	1-R ²	VIF	R ²	F(p)	Durbin-Watson
Communication ab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13	-2.29	<.001	.92	1.01	.297	33.22 (<.001)	1.55
	Empathy	.23	4.09	<.001	.95	1.06			
	Self-esteem	.43	7.67	<.001	.42	1.08			

는 음의방향으로($p < .001$), 공감과 자아존중감은 양의 방향으로($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 값은 33.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01$), Durbin-Watson 검정결과 2 근처에 있기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9.7%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0.4~0.9로 분산확대지수(VIF)도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변인으로는 높은 자아존중감($\beta = .43, p < .001$)과 공감($\beta = .23, p < .001$)이, 낮은 임상실습 스트레스($\beta = -.13, p < .001$)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하는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는 95%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hung[24]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며 3, 4학년이 간호학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며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작용함과 전문직으로써 타 직종에 비해 취업이 잘 되는 이점을 토대로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6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와 대상자를 사용한 Kim과 Lee[5]의 연구에서는 3.07점, Kim 등[25]의 3.09점, Kim 등[14]의 3.16점, Yang과 Moon[26]의 3.45점보다는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마다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결과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간호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교육요구를 반영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상실습협력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임상실습 현장의 개선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Yang등[27]의 연구에서는 3.5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경험 시 대상자 및 병원관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0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eo와 Park[28]의 3.9점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Whang[13]의 연구에서는 평균 3.10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본인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임상상황에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정규 혹은 비정규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고, 이는 동일한 도구와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Jo와 Lim[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과다,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고 [9] 임상수행능력 저하[8]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년별로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하고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시기의 학년은 임상실습 이전 추가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제공하여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Hyoungh 등[30]의 연구에서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실습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수의 차이가 많아 일반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교육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Kang과 Lee[29]의 연구결과와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습에 불만족일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결과는 당연하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불만족인 집단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원인 확인 및 대처방법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은 모든 변수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4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임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우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Seo와 Park[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낙관적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13]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모색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어 Jeong 등[17]의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와 병원관계자와 긍정적인 의사소통하며 전공 만족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만족도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감을 잘 할수록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hung[24]의 연구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감을 더 잘하고 의사소통 역시 잘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Yang 등[27]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 향상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Kim 등[14]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대학생이 입학 후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간호대학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 길러줄 경우 간호대학생은 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형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의 증가에 따라 실습스트레스는 .13점만큼 감소하고 공감은 .23점, 자아존중감은 .43점만큼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2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줄이고 공감과 자아존중감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임상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한 임상환경에 친숙해지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연계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현장의 대상자와 의료진들의 관계를 파악 및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학년부터 다양한 교육방법인 팀 기반학습, 문제기반학습,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및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공감,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하는 가장 큰 예측변인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전 자아존중감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추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뛰어난 임상실무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네 개 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체결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후속연구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o SH, Kim KM.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Nurse*. 1994;33(2):59-72.
2. Park YS, Im SB, Kim HS.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61-368.
3. Peplau HE.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dynamic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 1991.
4. Distler JW.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07;7(1):53-59.
5.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6. Xabier ZG, Xabier HE, Mari JAE, Mari JUI, Inma EG, Maite BL, Xabier SC. Stress sources in nursing practice, evolution during nursing training. *Nurse education today*. 2007;27(7):777-787.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6.10.017>
7. Kim JI, Kim JS. Effects of clinical training on stress, anxiety and changes in autonomic Nervous Syst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01;13(2):102-108.
8. Jung SY, Hwang CH, Go JY, Cho BK, Lee HL. Effect of stress level on academic achievement assessment among nursing students. *Collection of dissertation of Dongyang University*. 2010;4(1):177-196.
9. Yeo AR, Lee HJ, Jin HK. Factors associated with customer orientation and nursing productivity.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2):167-175.

10. Lee SJ, Jee H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Educational Research Psychology*. 2008;22(3):413-422.
11. Faulkner A. *Effective interaction with patients*.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1996.
12. Lindeman CA. The future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0;39(1):5-12.
13.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14. Kim IS, Jang YK, Park SH, Song 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337-345.
15. Oh EJ.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master's thesis*].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3.
16. Park JW, Choi MS.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51-360.
17. Jeong GS, Kim KA, Seong JA.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413-422.
18. Kim SM. Smart phone use level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master's thesis*].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4.
19. Whang SJ.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2002;14(1):35-54.
20.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980;10:85-100.
21. Jeon B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master's thesis*]. Daejeon: Choo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22. Ha YJ.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6.
23.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24. Chung MS.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9;18:60-68.
25. Kim JY, Kim MK, Cho J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669-678.
26. Yang N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1;17(2):216-225.
27. Yang SY, Lim HN, Lee JH.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183-19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28. Seo BM, Park HJ.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4;8(4):149-161.
29. Jo EJ, Lim KM.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mmunication skills on ego-resilience of nursing

-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6):618-628.
30. Hyoung HK, Ju YS, Im SI.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4):394-404.